

중세국어

백암고1 그랑 테스트 문법



아빠도 이제 한계다. 그냥 나가 살아라 유전자 탓 사회탓 환경 탓하지 마라. 아빠도 엄마도 충분히 기다려줬다. 니 엄마나 나나 어려운 환경에서 컸고 먹고살기만 해도 바쁘고 힘든 시절이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 그래서 결혼할때 우리 자식만은 행복하게 키우자고 약속했다. 너에게 언제나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다. 내가 먹고 입을거 참으며 네 옷, 먹는거, 교육 모두 좋은 조건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 네가 방황하거나 절망이 클때도 앞에선 흔했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못해줘서 그런가보다 하며 네 엄마랑 많이 울었다 그래도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겠지 나보다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.이 생각만 하며 꼭 참으며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이게 뭐냐? 너 나이가 몇인지알긴하냐? 도 대체 그 나이에 혼자서 할 줄 아는게 뭐냐? 늘불만은 많으면서 실천하는게 뭐냐 말이다.오늘 문득 우리가 쓸쓸못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. 거울을 보니 늙은 내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. 그냥. 이제 나가라. 나를 원망하지도 말고 니 힘으로 알아서 살아라. 아빠도 지쳤다 당장 짐싸라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世·성宗종御·영製·정訓·훈민민正·정음음

나·랏 :말·ㅅ·미 中·동國·국·에 달·아

文·문·字·쥬·와·로 서·르 스·못·디 아·니·힐·씨

·이·런 전·츠·로 어·린 百·백·姓·성·이

니·르·고·저 ·홍 ·배 이·셔·도

㉠·믈·쥬·내 제 ·쁘·들 시·러 퍼·디

:몬·홍 ·노·미 하·니·라

·내 ·이·를 爲·왕·하·야 :어·엿·비 나·거

·새·로 ·스·믈·여·들 字·쥬·를 **〔명·ㄱ·노·니〕**

:사·름·마·다 :히·여·㉡·수·뵈 나·거

·날·로 ·뿌·메 便·변·안·한·키 하·고·저 홍 썩·르·미·니·라

- “세종어제훈민정음”의 ‘어제 서문’

(나)

제2장

불·휘 기·픈 남·곤 북·락·매 아·니 뭇·씨 곳·도·코 여·름 하·느·니

시·미 기·픈 므·른 ㉢·믈·래 아·니 그·출·씨 내·히 이·러 바·르·래
가·느·니

제125장

千·世(천세) 우·희 미·리 定·(정)후·산 漢·水(한수) 北·(북)에 累·
仁·開·國(누인개국)후·사 卜·年(복년)이 古·업·스·시·니

聖·神(성신)이 니·수·샤·도 敬·天·勤·民(경천근민)후·샤·사 더욱 구·드
시·리·이다

님·금·하 아·르·쇼·셔 洛·水(낙수)에 山·行(산행) 가·이·셔 하·나·빌
㉣·미·드·니·잇·가.

- 정인지 외, ‘용비어천가’중에서

(다)

耶·陽·輸·송 | ……(목·련·드·려) 世·성·尊·존·스 安·한·쥬·불 **〔문·쥬·〕**
〔고〕 니·르·샤·디 므·스·므·라 ·오·사·니·잇·고

(중략)

須·송·達·똥이 부·터·썩 솔·보·디 如·성·來·랑·하 우·리·나·라·해 오·샤 衆·
중·生·쟁이 邪·쌍·曲·곡·을 덜·에 후·쇼·셔. 世·성·尊·존이 니·르·샤·디 出·출·
家·강·훈 사·루·문 쇼·히 곧·디 아·니·후·니 그·에 精·정·송·상 | 업·거·니
어·드·리 가·료. 須·송·達·똥이 ㉤·솔·보·디 내 어·루 이·르·수·보·리·이다.

- “석보상절(釋譜詳節)”중에서

1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~(다)에서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요소와 결합할 때 후음 가획자가 나타나는 체언을 사용하고 있다.
- ② (가)와 (다)는 (나)와 달리 화자가 동작의 주체임을 문법 요소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.
- ③ (가)와 (다)는 접미사를 통해 실현되는 사동문과 보조 용언을 통해 사용되는 사동문이 모두 사용되었다.
- ④ (가)에서는 현대 국어와 비교하였을 때 뜻은 같으나 활용형은 다른 용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(다)와 마찬가지로 후두 유성 마찰음 ‘ㅇ’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- ⑤ (나), (다)는 모두 청자를 높이는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의 종류의 수에는 차이가 있다.

2 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- ① ㉠: 용언에 접사가 두 번 결합하여 품사가 (가)의 ‘시러’와 동일하게 변화였다.
- ② ㉡: 어간의 형태는 그 당시 15세기에 공존하는 다른 형태가 존재하였으며 부사형 어미를 통해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.
- ③ ㉢: 어간에 연결 어미가 결합된 형태이며 이때의 어간은 아무런 형태의 결합 없이 명사로 품사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㉣: 의문형에 사용되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구체적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에만 사용된다.
- ⑤ ㉤: ‘아뢰다’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언으로 어간의 경우 이어지는 어미가 자음이나 모음이나에 따라 종성의 표기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.

서술형 1 (1) (가)의 **〔명·ㄱ·노·니〕**의 주어를 ‘최고 미녀 인텔리 강사 정지원’으로 바꾸었을때의 형태를 쓰시오. (방점은 강 적지마) (2) (다)의 **〔문·쥬·고〕**가 직접 높이는 대상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쓰시오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世·성宗宗御·영製·정訓·훈민민正·정음름

나·랏 :말쑈·미 中·國·국·에 달·아

文·문·字·중·와·로 서르 스·못·디 아·니·홀·씨

·이런 전·초·로 어·린 百·백·姓·성·이

니르·고·져 ①·홍 배 아·서·도

막·춤·내 제 ·쁘·들 사·려 퍼·디

:문·홍 ·노·미 하·니·라

·내 ·아·를 爲·왕·하·야 :어·엿·비 너·거

·새·로 ·스·믈·여·둡 字·중·를 밍·꺾·노·니

:사·름·마·다 :히·여·수·비 나·거

·날·로 ②·부·메 便·便·安·한·키 하·고·져 홍 썩·려·미·니·라

- “세종어제훈민정음”의 ‘어제 서문’

(나)

제2장

불휘 기픈 남근 ㅅ·래·매 아니 뭇씨 곳 도코 여름 하·느·니

시미 기픈 므른 ㅅ·래·매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ㅅ·래·매 가·느·니

제125장

千世(천세) 우희 미리 ㉠·定(정)·후산 漢水(한수) 北(북)에
累仁開國(누인개국)하샤 卜年(복년)이 곁업스시니

聖神(성신)이 니수샤도 敬天勤民(경천근민)하샤샤 더욱 구드
시리이다

님금하 아·루·쇼·셔 洛水(낙수)에 山行(산행) ㉡·가·이·셔 하나빌
미드니잇가.

- 정인지 외, ‘용비어천가’ 중에서

(다)

耶·陽·輸·승 | ……(목·려·드·려) 世·성·尊·존·ㅅ· 안·한·쥬·불 :문·쥬·
고 니·르·샤·디 므·스·므·라 ·오·사·니·잇·고

(중략)

須·송·達·뽕이 부·덕·식 술·보·디 如·성·來·랑하 우리나라해 오샤 衆
중·生·싱이 邪·쌍·曲·곡을 덜·에 하·쇼·셔. 世·성·尊·존이 니·루·샤·디 出·출
家·강·한 사·루·몬 쇼·히 곧·디 아·니·후·니 그·에 精·정·송·상 | 업·거·니
어·드·리 ㉢·가·료. 須·송·達·뽕이 술·보·디 내 어·루 이·르·수·보·리·이다.

- “석보상절(釋譜詳節)” 중에서

3 <보기>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보 기

선생님: 중세 국어의 어형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어형이 되었어요. (가)~(다)에서 찾은 다음 어형들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탐구해 봅시다.

	중세 국어	현대 국어
㉠	곤디	갈지
㉡	니르고져	이르고자
㉢	므른	물은
㉣	서르	서로
㉤	도코	종고

- ㉠: 현대 국어에서 'ㅣ' 앞의 'ㄷ'이 'ㄸ'으로 바뀌었으며, 소리가 사라진 모음이 다른 모음으로 바뀐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.
- ㉡: 현대 국어로 변화하며 단어의 첫머리에서 'ㄴ'이 탈락하였으며, (나)의 '님금'도 같은 현상을 거쳐 현대 국어의 어형이 되었다.
- ㉢: 현대 국어에서 입술소리 뒤의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으며,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 방식으로 표기도 달라졌다.
- ㉣: 현대 국어에서 다른 성질의 소리를 같은 성질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소실 문자의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.
- ㉤: 현대 국어와 달리 어간 어미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축약이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.

4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㉠ (나)에서는 목적격 조사의 축약 형태가, (다)에서는 같은 조사가 생략되어 사용된 모습이 있다.
- (가), (나), (다) 모두 관형격 조사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.
- (다)에서는 한자어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의 형태를 통해,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종성에 쓰인 'ㅇ'이 형식 종성임을 알 수 있다.
- (다)에서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으나 높임을 받는 대상이 목적으로 문장에 드러나 있지 않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.
- (나)에서는 한자어 뒤에 결합한 조사의 형태를 통해 그 한자의 당시 한자음이 현대 국어의 한자음과 소리가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.

5 ㉠~㉡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정답 2개)

- ① ㉠: 어간 'ㅎ-'와 인칭법 선어말 어미 '-오-'가 결합하여 '호-'의 형태로 나타났으며, 관형사형 어미와 함께 쓰인 '호'는 뒤 음절 초성의 발음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.
- ② ㉡: 어간에 모음조화를 고려한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면서 특정 모음이 탈락하였다.
- ③ ㉢: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'-ㄴ-'이 직접 연결되어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주체를 높이고 있다.
- ④ ㉣: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'-시-'와 연결 어미 '-어-'가 결합한 형태로 사용되어 행동의 주체이자 고사 속 주인공인 '태강왕'을 높이는 형태로 사용되었다.
- ⑤ ㉤: 어간에 미래 시제와 대답의 종류가 3개 이상인 의문의 의미를 함께 지닌 종결 어미가 결합하였으며 청자를 높이지 않는 표현이다.

6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~(다)의 부사격 조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보기

부사격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. 이들은 문맥에 따라 처소, 이유, 비교, 목표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냈다. 부사격 조사의 경우 형태가 동일한데 기능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. 아 더 채울 말 없는데 있어 보아야 하니 뭐라도 쓰고는 있는데 정말 힘들다 진짜. 서술형 1번 처음에 지원쌤에게 보여줬는데 지원쌤이 나보고 '뒤질래'라고 하심. 넘모 무섭다. 하지만 안 바꿈. 만약 내가 다음 학기부터 만나오면 지원쌤에게 뒤진줄 알아. 당근당근.

- ① (나)의 '바르매'와 '바르래'에는 형태가 같은 부사격 조사가 쓰였지만 기능은 다르다.
- ② (가)의 '전초로'와 '文字와로'에는 모두 '로'가 쓰였는데, '전초로'의 '로'는 이유를 '文字와로'의 '로'는 방법을 나타낸다.
- ③ (다)의 '목련드려'의 '드려'는 (가)의 '中國에'의 '에'와 마찬가지로 비교의 대상을 나타낸다.
- ④ (가)의 '中國에'와 (다)의 '쇼히'에는 형태가 다른 부사격 조사가 쓰였지만, 모두 비교의 대상을 나타낸다.
- ⑤ (가)의 '뿌매'와 (나)의 '마르래'에 쓰인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다른 것은 앞말의 모음이 각각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기 때문이다.

7 (가)~(다)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보기

- ㄱ. (나)의 '님금하'와 (다)의 '如來하'에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호격 조사가 쓰였다.
- ㄴ. (가)의 '배'와 (나)의 '불휘'는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쓰인 것으로 결합한 주격 조사의 형태가 동일하다.
- ㄷ. (나)의 '남곤', '므른'과 (다)의 '사랴문'에서 사용된 격 조사는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.
- ㄹ. (다)의 '부터썩'의 '썩'은 관형격 조사 'ㅅ'과 의존 명사 '긔'가 결합하여 높임의 목적격 조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.
- ㅁ. (다)의 '衆生이'에는 '世尊ㅅ'과 달리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였으며 이때의 체언은 의미상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.
- ㅂ. (가)의 '내 이룰'의 '내'와 '제 썩들'의 '제'는 대명사에 같은 형태의 조사 'ㅣ'가 결합한 것이나 두 조사의 기능은 다르다.

- ① ㄱ, ㄷ, ㅁ ② ㄱ, ㄹ, ㅂ ③ ㄱ, ㅁ, ㅂ
- ④ ㄱ, ㄴ, ㅁ, ㅂ ⑤ ㄱ, ㄷ, ㅁ, ㅂ

이럴 거면 7 왜 넣었냐는 나쁜 말은 금지금지~ 솔직히 7 모르면 사람 아니다~

서술형 2 (가)와 (나)를 활용하여 다음 <보기>의 ㉢에서 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.

보기

선생님: 형태가 비슷한 형태소라도 그 문법적 성격에 따라 단어의 품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. (가)~(다)에서 찾은 다음 표를 채워 봅시다.

사용 지문	자료	형태소 분석	품사
(가)	하나라		
(나)	하느니		㉢
(가)	날로	㉣	
(가)	전초로	㉣	
(나)	여름	동사 어간 + ㉤	㉤

※ 조건

- ㉣, ㉣, ㉤는 형태소 분석을 다음과 같이 쓰되, 조사와 접미사, 어미는 그 종류까지 밝히시오.
- 예시) “百·빅姓·성·이”: 체언(명사) + 주격 조사

- ㉢: ㉣: ㉤:
- ㉣: ㉤:

8 <보기>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 (정답 2개)

보기

閨損이 다습어미 損이를 띄여 제 아들란 소음 두어 주고 閨損이란 곱품 두어 주어늘 치버 물 석슬 노하 낙린대 아비 **알오** 다습어미를 내토폼려늘 閨損이 꾸러 술보되 어미 **이시면** 혼 아드리 치보려니와 업스면 세 아드리 **치브리이다** 아비 올히 너겨 아니 내턴대 어미도 도락혀 뉘우쳐 **어옛비** 너기더라

— 『삼강행실도 언해』

[현대어 풀이] 민손의 새어머니가 손이를 미워하여 자기 아들은 숨을 두어 주고 민손이는 갈꽃을 두어 주거늘, (민손이) 추워 말고삐를 놓아 버리니 아버지가 알고 새어머니를 내쫓으려 하거늘, 민손이 꿇어 아뢰되 "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이 추울 것이라니와 없으면 세 아들이 추울 것입니다." 아버지가 옳게 여겨 아니 내치니 어머니도 도리어 뉘우쳐 불쌍히 여기더라.

※ 소음: 숨 / 곱품: 덜 핀 갈꽃 / 섧: 고삐

- ① '알오'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'ㄹ' 뒤에서 연결 어미의 첫소리 'ㄱ'이 후두 유성 마찰음 'ㅇ'으로 교체되었다.
- ② '이시면'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'어미'를 높이고 있다.
- ③ '치브리이다'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와 청자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으며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았다.
- ④ '어옛비'에서는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으며 현대 국어와 의미가 달라졌다.
- ⑤ '너기더라'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으며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.

서술형 3 다음 <보기>를 보고 ㉠~㉣의 알맞은 형태를 채우시오.

보기

고조 **센세**: 중세 국어의 단어 중에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음운 변화를 차례로 겪은 것이 많아. 특히 '·'의 경우는 시기별로 그 변천 양상이 달라. 16세기에 첫 번째 변화를 겪고 18세기에 두 번째 변화를 겪지. 다만 중간에 이러한 변화와는 별개로 17세기에 ㉠도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야. 이를 토대로 현대 국어의 '하물며'에 해당하는 'ㅎ·물며'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한 번 써봐-★

ㅎ·물며 - ㉠ ㉡ - ㉢ - 하물며

- ㉠:
㉡:
㉢:

9 <보기>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보기

元覺이 한아비 늙고 病ᄃᆞᆫ더니 元覺이 아비 元覺일 ᄃᆞᆫ 담사ᄃᆞᆫ 지어 **되해** 다가 더디라 ᄃᆞᆫ날 元覺이 마디 못ᄃᆞᆫ 더디고 **옴 저기** 元覺이 그 담사ᄃᆞᆫ 가져오거늘 아비 **닐오되** **머즌** **그르슬** **므스게** **꼴다** 혼대 **對答호되** 뒷다가 나도 아비 **다모리라** ᄃᆞᆫ날 붓그려 제 아비를 도로 더브러 오니라

— 『삼강행실도 언해』

[현대어 풀이] 원각의 할아버지가 늙고 병들었더니 원각의 아버지가 원각을 시켜 (할아버지를) 들것에 지어 산에다가 던지라 하거늘, 원각이 마지못하여 던지고 올 적에 원각이 그 들것을 가져오거늘 아버지가 이르되 "홍한 그릇을 무엇에 쓰려 하느냐?" 하니 대답하되 "두었다가 나도 아버지를 담으리라." 하거늘 (아버지가) 부끄러워하여 제 아버지를 도로 데리고 왔다.

※ 담사ᄃᆞᆫ: 들것 / 머즌: 흥한

- ① '되해'에서는 부사격 조사 '해'를 통해 앞 체언이 서술어가 행해지는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.
- ② '옴 저기'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된소리 부호와 더불어 의존 명사가 이어졌으며 모음조화를 지킨 관형격 조사 '의'와 결합하여 체언을 관형어로 만들고 있다.
- ③ '머즌 그르슬 므스게 꼴다 혼대 對答호되'에서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의문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'-고' 계열의 의문형 어미가 드러난다.
- ④ '닐오되'에서는 중세 국어 시기에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모습을 알 수 있으며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목적어임을 보여주는 선어말 어미와 연결 어미가 함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.
- ⑤ '다모리라'에서는 화자가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였으며 청자를 높이는 종결어미는 쓰이지 않았다.



강원희국어학원

흔들리지 않는 국어 자신감